2026년 10월 시청자위원회 운영실적

방송국명 : 광주문화방송(주)

1. 회의 개최

연번	일 시	장 소	참석인원				회의 형태		
			시청자 위원 (참석인원/ 총인원)	방송국		총 인원 (명)	대면	온라인	서면
				경영진 (명)	경영진 외(명)				
26-10	10.21	회의실	11/14	4	1	16	○	-	-

o 회의 참석자 명단

① 시청자위원 명단 : 김명규·박봉순·반수경·설제학·안유성·양지현·유동국·이미진·이해경·조명근·한지혜 위원(11명)

② 방송국 관계자 명단

- 경영진(대표(사장), 제작 및 편성부서 국실장급 또는 이에 준하는 직급) : -김낙곤(사장), 황동현(경영전략본부장), 한신구(방송본부장), 서준배(디지털본부장)

- 경영진 외 : -황형철(경영심의광고팀 부장)

2. 심의 결과 및 조치현황

가. 의견제시 또는 시정 요구

방송 편성	채널 구성·운영	방송프로그램					자체 심의 규정	**합계**
		보도	교양	연예·오락 (스포츠)	기타	**소계**		
0	0	4	6	1	0	**11**	0	**11**

나. 사업자 반영

구 분	수 용	의견 참고	반 론	**합계**
건 수	10	1	0	**11**

다. 의견제시(시정 요구)에 대한 조치내용

구분	의견제시(시정 요구)내용	조치내용	제시월
보도	지역 청년의 일자리와 지역기업의 성장, 주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는지를 지속적으로 관심 바람	<뉴스투데이> 반도체 공장 하나가 시골 마을을 바꿨다(10.27), <빛나는 나의 도시>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10.28), '반도체 배후도시' 도약 위한 재정 개혁(11.17), <5시 뉴스> 내년 예산 22조 원 지역경제 활력·시민 삶 개선 집중(11.16) 등 방송 조치	'26.10
〃	통합 시너지 효과가 주민의 삶에 어떻게 스며드는지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지역 여론의 나침반 역할을 해주기 바람	다큐멘터리 <가지 않은 길>(11.5.), <뉴스투데이> 속도·인프라·인재·특화산업 모두 갖춰야(11.4), <시사용광로> 공공기관 2차 이전 임박, 전남광주의 전략은?(11.12) 등 방송 조치	〃
〃	통합시 시정 질문 관련해 '광주가 다 가져갔어요' 이런 제목은 너무 일방적이고 자극적임	보도와 디지털콘텐츠 책임자 의견 전달 및 제작 시 유의 권고 조치	〃
〃	K-푸드의 중심이 되도록 역할 바람	ACC재단과 광주MBC의 김치 세계화 프로젝트 '김치 만개' 연계 프로그램 <식객: 한국 맛의 여정>(마닐라, 11.5) 행사 개최, 김치 포럼(11.20) 주최 등 조치	〃
교양	<빛나는 나의 도시>, 지역 축제 종료 후 해당 축제 방송함. 시점 아쉬움	편성 책임자와 담당 PD 의견 전달 및 제작 시 유의 권고 조치	〃
〃	<빛나는 나의 도시> '잘 먹고 잘사는 법' 코너, 지역 사례를 다뤄 주길 바람	<빛나는 나의 도시> 시청자 질문 사례 매주 2건씩 소개, 체험 수업 버스 사고 관련(11.18) 등 방송 조치	〃
〃	<빛나는 나의 도시> '잘 먹고 잘사는 법' 코너, 자막, 그래픽 등으로 내용 정리하면 시청자의 이해 도움 될 것임	<빛나는 나의 도시> 자막, AI 생성 이미지 등 활용(10.28, 11.4) 등 방송 조치	〃
〃	<빛나는 나의 도시> 지역의 청년 창업자, 소상공인, 농어민, 문화예술인 등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는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발굴하고, 전남의 시군과 농어촌 지역에도 관심을 바람	<빛나는 나의 도시> 우가 우가! 화순 시간 여행(10.22), 봄에서 가을로! 2026 영산강 그란폰도(10.29), 헤드헌터 J 지역소멸 대응 프로젝트(11.12) 등 방송 조치	〃
〃	<테마기행 길>, 하나의 생활권을 주제로 하거나, 다양한 주민이 직접 자	공동제작사인 지역 MBC 편성 담당자에게 의견 전달 조치	〃

	기 동네를 안내하는 방식 바람		
〃	<테마기행 길> 인구감소 지역, 섬, 농어촌 마을이 소외되지 않도록 연간 촬영 계획 세워 주고 시청자위원회 공유 바람	11월 시청자위원회 시 보고 조치	〃
합계		10건	

라. 시청자 권익 보호와 침해구제

요 청 내 용	조 치 내 용	조치 일자	비고
해당 사항 없음			

마. 시청자평가원 선임 현황

(임기: 2000.0 ~ 2000.0)

성 명	생년월일	전·현직	변동사유	비고 (임기)
해당 사항 없음				

3. 시청자위원회 운영 효율성

평가기준	해당여부
시청자불만, 시청자평가원 의견, 방심위 조치 등 활용 여부 ※ 활용 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내용에 대한 답변' 실적표에 확인할 수 있도록 명시 필수	○
토의안건 사전공지 및 상시적 의견 개진 창구 운영 중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	○

4. 기타사항

가. 시청자위원회 회의록 공개 사항

- 홈페이지에 공개

나. 상시의견수렴 실적

상시의견수렴방법	내용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 메일	해당 사항 없음

당월 시청자위원회의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내용에 대한 답변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고	반론
보도	지역 청년의 일자리와 지역기업의 성장, 주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는지를 지속적으로 관심 바람	통합 성과가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기업의 투자·매출 확대로 이어지는지 구체적인 지표 점검에 주력하고 있음. 특히 청년 인구 유입 방안, 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 부문에 대한 취재에 매진하고 있음	○		
〃	통합 시너지 효과가 주민의 삶에 어떻게 스며드는지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지역 여론의 나침반 역할을 해주기 바람	프랑스의 선행 사례를 기반으로 한 기획보도 이후 우리 지역 실질 통합 성과(앰코 투자 확대)까지 담은 종합 다큐멘터리 등을 기획, 보도했으며,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겠음	○		
〃	통합시 시정 질문 관련해 썸네일 제목에 '광주가 다 가져갔어요' 이런 제목은 너무 일방적이고 자극적임	썸네일 제목 선정에 있어 기사의 특징을 잘 드러낼 수 있도록 더욱 신중히 처리하겠음	○		
〃	K-푸드의 중심이 되도록 역할 바람	우리 지역과 다른 지역의 시청자들도 우리 지역 음식에 관심이 많은 만큼 K-푸드가 등장하는 현장을 열심히 담도록 노력하겠음	○		
교양	<빛나는 나의 도시>, 지역 축제 종료 후 해당 축제 방송함. 시점 아쉬움	<빛나는 나의 도시>는 현장성과 역동성을 아이템 영상으로 행사와 축제 이면의 다양한 모습을 담아내고 있으며, 방송 시간도 더욱 유의하겠음	○		
〃	<빛나는 나의 도시> '잘 먹고 잘사는 법' 코너, 지역 사례를 다뤄 주길 바람	지역 시청자의 사례를 매주 소개하고 있으며, 우리 지역 사례를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음	○		
〃	<빛나는 나의 도시> '잘 먹고	해당 프로그램에서 자막이나 AI	○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고	반론
	잘사는 법’ 코너, 자막, 그래픽 등으로 내용 정리하면 시청자의 이해 도움 될 것임	생성 이미지 등을 활용하고 있으며, 시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겠음			
〃	<빛나는 나의 도시> 지역의 청년 창업자, 소상공인, 농어민, 문화예술인 등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는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발굴하고, 상대적으로 조명받기 어려운 전남의 시군과 농어촌 지역에도 관심을 바람	소외 계층이나 지역에 빛을 드리려는 기획으로 방송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관심을 기울이겠음	○		
〃	<테마기행 길>, 하나의 생활권을 주제로 하거나, 다양한 주민이 직접 자기 동네를 안내하는 방식 바람	전국 16개 계열사가 공동 기획하고 있어 구성이나 형식 변화에 어려움이 있으나 다양한 기획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고, 계열사 책임자에게도 의견을 전달하겠음	○		
〃	<테마기행 길> 인구감소 지역, 섬, 농어촌 마을이 소외되지 않도록 연간 촬영 계획 세워 주고 시청자위원회 공유 바람	2027년 2월 광주 동구 편이 예정돼 있으며, 1년에 두 번 당사가 제작하고 있으며, 계획을 공유하겠음	○		
연예·오락(스포츠)	<전설의 타이거즈> 고교야구와 유망주 소개 콘텐츠 제작 제안	지역 유망주 조명, 신인 드래프트 지명 선수 인터뷰, 타이거즈 레전드의 모교 방문 등 지역 야구의 현재와 미래를 담은 콘텐츠에 관심을 기울이겠음		○	

시청자위원회 회의록(2026년 10월)

일 시		2026년 10월 21일(수) 17시	장 소	회의실
참석자	위원회	김명규 · 박봉순 · 반수경 · 설제학 · 안유성 · 양지현 · 유동국 · 이미진 · 이해경 · 조명근 · 한지혜 위원(11명)		
	회 사	김낙곤 사장, 황동현 경영전략본부장, 한신구 방송본부장, 서준배 디지털본부장(4명)		

▣ 회의 내용

○ 박봉순 위원장 : -가을이 어느덧 깊숙이 왔다. 개인적으로 야구를 좋아하는데 기아 타이거즈가 3연승을 했고, 광주MBC에서 관심을 가지고 보도했다. 오늘도 위원님들 귀한 시간 내시어 많이 참석해주셨다. 참고로 23일부터 안유성 명장이 주도하시는 남도음식문화큰잔치가 영산강에서 열린다. 일반 음식 축제와 달리 자주 보지 못한 궁궐음식, 사찰음식, 폐백음식 등 여러 가지 전시가 있고, 시군에서 참여한 다양한 이벤트가 열린다. 시간 되시면 가을 영산강변에서 멋과 맛을 누려보면 좋겠다.

○ 김낙곤 사장 : -오늘 시청자위원회에 참석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린다. 지난 10월 방송한 <두근두근 동창회>가 방송문화진흥회 지역프로그램대상에서 동상을 받았다. <영산강 그란폰도>가 10월 31일에 영산강 둔치 체육공원에서 열린다. 아름다운 영산강변을 달리며 영산강이 열어갈 새로운 미래를 함께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 광주MBC 김치 프로젝트 <김치만개(滿開) : 더할 나위 없는>이 11월 20일부터 22일까지 5.18민주광장에서 열린다. 김치와 김장 문화를 매개로 지역의 역사와 문화, 공동체의 가치를 되새기고, 전통 식문화의 계승과 나눔의 정신을 확산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1만 포기 김장을 해서 소외계층에게 나눔을 실천하고, K-푸드 한국의 맛, 김치 세계화의 새로운 전략을 주제로 포럼도 마련했다. 또 인기가수와 다양한 장르가 어우러진 콘서트도 열린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가를 바란다.

○ 박봉순 위원장 : -그럼 업무 보고를 먼저 해달라.

○ 한신구 본부장 : -먼저 보도부문부터 말씀드리겠다. 국정감사를 계속하고 있는데 현재는 통합시청 감사를 하고 있다. 광주 시내버스 노선이 7년 만에 전면 개편되는데 이에 관해 관심을 가지고 보도하고 있다. 창사특집 <가지 않은 길>이 11월 5일 방송되며, 광주여성영화제, 아트페어 등 지역에서 열리는 다양한 문화 행사도 소개하고 있다. 기아 타이거즈의 가을 야구를 LTE로 현장 연결하는 등 소식을 전하고 있으며, 주요 현안이나 인물을 <인터뷰 온> 코너를 통해 계속하고 있다. 광주통합시청과 교육청의 금고 선정을 앞두고 있다. 통합시청이 되면서 전남과 광주로 나눠져 있었는데 이번에 선정하게 되면 내년부터 3년 동안 운영하게 된다. 편성에서는 <시사용광로>에서 민형배 시장 취임 100일을 맞아 대담을 방송했고, 창사특집 <메가프로젝트 대전환의 시작> 토론을 10월 15일부터 29일까지 매주 목요일 밤 방송한다. <테마기행 길>에서는 '찬란한 기억을 걷는 길'을 주제로 10월 9일 방송했고, <무등산권 지오마라톤>이 10월 10일에, 통합시의회 시정 질문 수중계를 10월 12일에 각각 방송했다. 10.19 여순 기념식을 중계했고, 양림동 라디오 공개방송이 10월 16일 진행됐다. 한국전파진흥협회 제작지원 <스팅> 제주 촬영을 했으며, 창사특집 <어머니의 노래>도 제작을 계속하고 있다. <영산강 그란폰도>는 10월 31일에 열리며, 현장 생방송을 진행한다. 현장

○ 서준배 디지털본부장 : -디지털본부에서는 <무등산권지오마라톤>을 유튜브 라이브로 중계했다. <더 프레지던트>를 제작해 방송했고, <암 극복프로젝트>로 유방암, 대장암, 전립선암, 간암 편을 제작했다. 장성군 필암서원 다큐 제작을 계속하고 있는데 11월에 방송할 예정이다. 한국언론진흥재단 제작지원에 선정된 캠페인 촬영을 진행했다. 주요 제작계획으로는 <더 프레지던트> 텔레비전 방송용 제작을 계속한다. 총 100분물을 13편 제작하고, 11월 28일까지 방송이 계속된다. AI 실증 사업 '모두의 AI' 컨소시엄에 참여할 계획이며, 필암서원 다큐 제작을 계속하고, 한국언론진흥재단 공익광고 선정 캠페인 2편을 제작해 10월과 11월에 방송한다. 전남대 앵커사업단의 언론동행사업에 선정돼 <우리가락 우리문화>를 제작하며, 10월 31일 <영산강 그란폰도>, 11월 6일 <우리술 품평회> 등 행사도 예정돼 있다.

○ 박봉순 위원장 : -위원님들 의견을 듣도록 하겠다.

○ 김명규 위원 : -<전설의 타이거즈>를 재미있게 보고 있다. 광주MBC가 가진 방대한 아카이브를 활용해 해태와 KIA의 역사를 되살렸다는 점에서 지역방송이 가진 강점을 잘 살린 콘텐츠라고 생각한다. 다만 한 가지 제안하고 싶다. 현재 콘텐츠가 과거의 명경기나 레전드 선수들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하다 보니 아무래도 해태 시절을 기억하는 중장년층의 향수를 자극하는 성격이 강하다. 물론 이것은 <전설의 타이거즈>만이 가진 중요한 자산이다. 하지만 이제는 이 자산을 기반으로 젊은 세대까지 시청층을 넓혀보면 어떨까 생각한다. 최근에는 '전설의 갸들'을 통해 젊은 KIA 선수들도 소개하고 있는데, 여기에

서 한 단계 더 나아가 광주·전남지역 고교야구와 유망주들을 소개하는 콘텐츠를 정기적으로 만들어보면 좋겠다. 가령 '미래의 타이거즈'나 'NEXT TIGERS' 같은 코너를 만들어 광주·전남의 고교야구 유망주를 찾아가 소개하는 것이다. 단순히 야구 실력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선수의 꿈과 성장 과정, 학교와 지도자, 가족 이야기를 담고, 그 학교 출신의 과거 타이거즈 스타들과 연결한다면 광주MBC가 가진 아카이브도 훨씬 가치 있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전설의 타이거즈'가 과거의 전설만 이야기하는 프로그램에서 한 단계 더 발전했으면 한다. 과거의 전설을 기억하고, 현재의 타이거즈를 응원하며, 미래의 전설을 발굴하는 콘텐츠가 되었으면 한다. 특히 고교야구와 유망주 콘텐츠는 쇼츠나 릴스 같은 짧은 영상으로도 확장하기 좋아 10대와 20대 시청자들을 유입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전설의 타이거즈>가 중장년층에게는 추억을 주고 젊은 세대에게는 새로운 스타를 발견하는 재미를 주는, 세대를 연결하는 광주MBC의 대표 스포츠 콘텐츠로 발전하기를 제안한다.

○ 안유성 위원 : -저는 나주 영산강 축제, 남도음식문화큰잔치, 음식 포럼 등을 통해 역할을 하고 있다. 부산이나 경남에서는 많은 예산을 받아와서 미식에 관한 다큐 제작을 많이 하고 있다. 바람이라고 한다면 미식에 관한 부분에 대해 주도적인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 예를 든다면 <대한민국 김치대전>을 하고 있고, 시에서는 김치 축제도 하고 있다. 민 시장도 미식에 관해 하고 있는데 전남, 광주로 나뉘었던 부분을 하나로 합치겠다고 한다. MBC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잡아서 미식에 관해 함께 하면 좋겠다. 남도음식문화큰잔치는 19년째 하고 있는데 각 시도를 돌면서 하고 있다. 목포에서 할 때는 200억 예산을 받았고, 이번에는 나주에서 가장 큰 행사로 하게 된다. 이 행사가 열리면 미식의 도시로 급부상하게 된다. 나주도 미식의 도시로 부상할 걸로 생각한다. 명인, 사찰음식을 하는 스님, 프랑스 명장 등이 와서 협업한다. 음식이 세계로 뻗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10개 분야 수출계약을 끝내기도 했다. 진정한 미식의 산업화인 것 같다. 진정한 K-푸드의 중심이 되도록 광주MBC가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

○ 양지현 위원 : -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관심 있게 방송을 보고 있는데 다양한 프로그램을 많이 해줬다. 광주MBC 창사특집 대토론 <메가프로젝트, 대전환의 시작>은 반도체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등 국가적 메가프로젝트를 통해 광주·전남의 미래 성장 가능성을 진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시간이었다. 지역의 산업구조 변화와 새로운 성장동력을 심층적으로 다루며, 수도권 중심의 산업 발전 구도 속에서 지역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공론장의 역할을 수행했다는 점이 매우 좋았다. 앞으로는 메가프로젝트의 투자 규모와 산업적 가능성뿐 아니라, 그 성과가 지역 청년의 일자리와 지역기업의 성장, 주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는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후속 기획도 마련해 주면 좋겠다.

-<살맛 나는 세상> 담양 청년 농부 자매 부부 편에서는 지방 소멸과 농촌 고령화가 심각한 사회적 화두인 상황에서, 20대 청년 자매와 그 배우자들이 연대하여 농촌에 정착해 가는 과정을 밝고 긍정적인 시선으로 조명했다. 귀농·청년 창업이라는 무거운 정책적 주제를 가족애와 생활 밀착형 에피소드로 편안하게 풀어내 프로그램 본연의 취지인 살맛 나는 세상의 정서를 충실히 구현했다. 농업의 낭만성만 강조하지 않고 농부들이 겪는 실질적인 애로를 언급하며 사실성을 확보했다.

○ 유동국 위원 : -이번 주 <빛나는 나의 도시>는 5일간 펼쳐진 나주 영산강 축제부터 강원도 인제 가을 여행, 아웃도어 문경, 청원생명포도까지 전국 각지의 다채로운 가을 소식을 풍성하게 담아내어 시청자들에게 계절의 감흥과 지역의 활기를 생생하게 전달했다. 나주 영산강변을 가득 채운 억만 송이 가을꽃, 코스모스, 해바라기, 메밀, 댑싸리 등 아름다운 볼거리와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의 화려한 에어쇼를 시의성 있게 담아냈다. 윤병태 나주시장의 인터뷰를 통해 영산강 정원의 지방정원 및 국가정원 추진 비전을 전달하고, 나주 천연 쪽 염색 체험과 농특산물 전시, 홍어삼합 등 대표 먹거리를 소개해 지역 경제 및 관광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유익한 정보를 제공했다. 박지선 리포터와 연빛나 MC의 매끄럽고 활기찬 진행이 방송의 몰입도를 한층 높여주었다. 나주 영산강 축제 기간이 10월 7일부터 10월 11일까지였으나, 방송일은 행사가 종료된 지 나흘이 지난 10월 15일이었다. 시청자가 방송을 보고 현장을 찾아가기에는 이미 축제가 끝난 시점이어서 정보 전달 및 관광 유도 측면에서 좀 아쉬움이 있었다.

○ 이미진 부위원장 : -<빛나는 나의 도시> '잘 먹고 잘사는 法'에서는 배우 집 앞까지 찾아간 시위대, '표현의 자유' 어디까지 처벌될까를 주제로 방송했다. 영화 <암살자(들)>을 둘러싼 논란이 주연 배우의 자택 앞 집회로 번지고 광고 불매 시위로까지 확산한 사안을 유한별 변호사가 법률적으로 풀어 준 코너가 유익했다. 어디까지가 허용되는 비판이고 어디서부터가 협박·모욕·명예훼손이나 스토킹 처벌법 위반이 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짚어 준 것은 시청자들이 뉴스를 읽는 기준을 세우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매주 수요일 이 코너는 전국적 이슈를 우리 지역 시청자의 생활과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사안처럼 유명인의 집 앞 시위뿐 아니라 우리 지역에서도 아파트 단지나 상가, 관공서 앞에서 벌어지는 집회와 1인 시위를 두고 주민들이 겪는 갈등이 적지 않다. 앞으로 지역 사례를 함께 다루어 준다면 시청자들이 더 가깝게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짧은 분량에 많은 법률 내용을 담다 보니 자막이나 그래픽으로 핵심 법조문과 판단 기준을 한 번 더 정리해 주면 이해가 더 쉬울 것 같다. 어려운 법률문제를 일상의 언어로 전해 주는 좋은 코너가 꾸준히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 이해경 위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테마기행 길>의 발전 방향에 관해 이야기하고 싶다.

<테마기행 길>은 전국 MBC 계열사가 공동 제작·편성하는 기행 프로그램으로, 광주MBC에서는 금요일 오후 5시 10분에 방송되고 있다. 홈페이지 다시 보기를 보면 2026년 2월부터 10월까지 방송된 12편 가운데 광주·전남을 다룬 회차는 구례, 목포 원도심, 담양 등 3편이다. 공동제작 구조상 지역 배분에 한계가 있다는 점은 이해한다. 그러나 통합특별시 출범으로 우리 권역은 광주 도심부터 전남 22개 시군과 섬 지역까지 넓어졌다. 이제 무엇을, 누구의 목소리로 보여줄지에 대한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다. 지역의 정체성을 담는 프로그램을 지키는 일은 지금도 유효한 과제다. <테마기행 길>은 우리 지역을 전국 시청자에게 알리는 몇 안 되는 창구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그런 점에서 발전 방향을 제안한다. 첫째, 통합의 의미를 담는 연속 기획이다. 광주와 전남을 따로 소개하기보다 영산강·섬진강 물길, 무등산권과 남도 섬길처럼 행정 경계를 넘어 이어지는 하나의 생활권을 주제로 묶어 시리즈로 제작해 주길 바란다. 둘째, 지역 배분의 균형이다. 널리 알려진 관광지뿐 아니라 인구감소 지역, 섬, 농어촌 마을이 소외되지 않도록 연간 촬영 계획을 세워 주길 바란다. 그 결과도 시청자위원회와 공유해 주길 바란다. 셋째, 화자의 다양성이다. 광산구 고려인마을 주민, 결혼이주여성과 이주노동자, 귀농·귀촌 청년, 장애인과 어르신 등 다양한 주민이 직접 자기 동네를 안내하는 방식을 도입해 주길 바란다. 그러면 관광 정보를 넘어 지역의 실제 얼굴을 보여줄 수 있다. 넷째, 역사와 현재를 함께 담는 기행이다. 5·18과 여순사건 같은 아픈 역사, 갯벌과 습지 같은 생태 자원, 반도체 클러스터와 공공기관 이전처럼 변화하는 산업 현장을 길 위에서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도록 구성해 주십시오. 맛집·명소 위주의 홍보성 구성에서 한 걸음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이다. 다섯째, 방송분을 유튜브 숏폼이나 <테이스티 남도> 등 기존 디지털 채널과 연계하면 젊은 시청자에게도 닿을 수 있다. 주민이 추천하는 '우리 동네 길' 공모도 참여를 넓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 통합특별시는 행정의 통합이지만, 방송은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의 다양한 삶을 하나로 엮을 수 있다. <테마기행 길>이 전국에 하나이면서 여럿인 남도를 보여주는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

○ 조명근 위원 : -10월 15일 방송된 <빛나는 나의 도시>에서는 나주 영산강 축제와 강원도 인제, 문경 가을 여행 등 지역의 문화, 관광 자원을 소개하며 광주, 전남의 매력을 알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지역 축제와 관광 명소를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축제가 지역 상권과 주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 관광지의 교통 및 편의시설, 자연환경 보전 문제 등도 함께 다뤄 주었으면 한다. 또한, 지역의 청년 창업자, 소상공인, 농어민, 문화예술인 등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는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발굴하고, 상대적으로 조명받기 어려운 전남의 시군과 농어촌 지역에도 관심을 기울여주기를 바란다. 아울러 시청자의 제보와 의견을 방송에 적극 반영하고, 지역의 불편 사항이나 개선 과제가 실제로 어떻게 해결되는지 전달한다면 더욱 의미 있는 지역 밀착형 프로그램이 될 것이다. 앞으로도 <빛나는 나의 도시> 프로그램이 지역의 아름다움을 알리는 동시에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

○ 한지혜 위원 : -지방 소멸의 위기 속에서 대한민국 최초의 광역시와 도간 행정 통합으로 주목받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 100일을 맞이했다. 이번 광주MBC <시사용광로>의 민형배 통합특별시장 직격 대담은 새롭게 열린 통합 시대의 첫 발자국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산적한 지역 현안의 해법을 모색하는 매우 시의적절하고 무게감 있는 기획이었다. 방송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민형배 시장이 지난 100일간의 소회를 두려움이라는 솔직한 단어로 표현하며 스스로 85점이라는 점수를 부여한 대목이었다. 거대한 행정 조직의 개편을 이끌어야 하는 초대 시장으로서의 중압감과 책임감이 고스란히 전해졌다. 초기 우려와 달리 공직 사회의 자율성과 시민 사회의 잠재력에서 가능성을 보았다는 답변은 통합특별시의 미래에 대한 신뢰를 갖게 했다. 특히 방송은 시청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 군공항 이전 및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도시철도 2호선 2단계 사업 등 굵직한 메가프로젝트의 추진 현황을 날카롭게 질문하여 시청자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었다. 초기 반도체 투자 계획 발표 당시 지역사회의 반응이 예상보다 조용해 고뇌했다는 민 시장의 비하인드 스토리는 대규모 국책사업을 이끌어가는 자치단체장의 고충을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다. 아울러 무안청사에서의 상시 집무를 통해 지역 불균형 해소와 서남권 현안을 직접 풀겠다는 민 시장의 의지를 직격 인터뷰로 끌어낸 점도 돋보였다. 다만, 날카로운 정책 검증 속에서도 일반 시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통합 효과에 대한 논의가 다소 부족했던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나타났듯 대다수 시청자와 지역민들은 행정 통합 이후 교통, 복지, 세제 혜택 등 실생활의 변화를 피부로 느끼지 못해 답답해하고 있다. 프로그램 내부에서 거대 담론뿐만 아니라 "기존 광주와 전남 주민이 받던 복지 혜택의 상향 평준화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와 같은 서민 중심의 질의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다루어 주었다면 방송의 완성도와 공감대가 한층 더 높아졌을 것입니다. "아직 실망하기에는 짧은 시간이며, 속도보다 방향을 제대로 잡고 천천히 나아가겠다"라는 민 시장의 다짐처럼, 통합특별시는 이제 막 긴 여정의 출발선을 지났을 뿐이다. 앞으로도 <시사용광로>가 단순한 일회성 대담에 그치지 않고, 통합 시너지 효과가 주민의 삶에 어떻게 스며드는지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지역 여론의 나침반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다.

○ 박봉순 위원장 : -끝으로 시청자 의견이다. 통합시 시정 질문 관련해 '광주가 다 가져갔어요' 이런 제목은

너무 일방적이고 자극적이라는 지적이다. 전남 시의원의 발언이 마치 사실인 양 시민들에게 오해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실제로는 통합시 의회, 교육청, 주 청사 예산재정기능 핵심 기능들이 무안으로 간 사실관계도 뉴스 내에서 같이 다뤄 주면 어땠을까 한다는 의견이다. 이 의견처럼 제목만 본다면 시청자로서는 오해할 수 있을 것이다. 제목을 뽑을 때 좀 더 신중하길 바란다.

-전월 의견이 반영이 잘 되었다. 바로 반영해줘 감사드린다. 전월 회의 처리 결과에 대해 잘못 반영되거나 의견이 있으면 얘기해주길 바란다. 별도 의견이 없으니 사장님 말씀을 듣고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다.

○ 김낙곤 사장 : -반도체 산업을 통해 미래를 전망하는 특집 토론을 계속하고 있는데, 또 한 줄기는 도시의 정주 여건에 관한 부분이다. 10월 30일에 공개홀에서 포럼을 연다. 반도체 산업의 발전을 통해 지역이 성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주 여건을 개선해 청년 등 많은 사람이 이 도시를 떠나지 않도록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맛에 관해서도 관심을 계속 가지겠다. 아시아문화전당에서 식객을 주제로 큰 기획을 했는데, 이런 콘텐츠가 좋은 기획으로 이어지길 바란다. 경제와 문화라는 두 바퀴가 같이 굴러가야 멋진 도시가 될 것이다. 위원님의 의견을 반영하고 도움을 받아 중요한 역할을 잘해야겠다는 생각이다. 감사드린다.

끝.

시청자위원회 회의록(2026년 9월)

일 시		2026년 9월 16일(수) 17시	장 소	회의실
참 석 자	위 원 회	박봉순 · 박찬호 · 반수경 · 설제학 · 심재현 · 양지현 · 유동국 · 이미진 · 이숙영 · 이해경 · 조명근 위원(11명)		
	회 사	김낙곤 사장, 황동현 경영전략본부장, 한신구 방송본부장, 서준배 디지털본부장(4명)		

▣ 회의 내용

○ 황동현 경영전략본부장 : -9월 시청자위원회를 시작하겠다. 위원장을 선출했는데, 위원장이 공직을 맡게 돼 사임을 하게 됐다. 새롭게 위원장님을 뽑아야 한다. 절차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하겠다. 위원장 후보를 추천해 달라.

○ 조명근 위원 : -우리 위원회에서 연장자이신 박봉순 위원님이 잘 이끌어 주실 것으로 생각하고. 박봉순 위원님을 추천한다.

○ 황동현 : -추천 감사드린다. 다른 분 또 추천을 바란다. 추천이 없으신 관계로 박봉순 위원님 한 분을 대상으로 찬반을 거수로 정하겠다. 위원장으로 동의하시면 손을 들어주길 바란다. 오늘 참석하신 열한 분 가운데 박봉순 위원님을 제외한 열 분이 동의를 해주셨다. 이로써 박봉순 위원님이 새 위원장으로 추대됐다.

지금부터는 박봉순 위원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겠다.

○ 박봉순 위원장 : -여러분들의 기대에 잘 부응할 수 있도록 시청자위원회 이끌어 가도록 하겠다. 이미진 부위원장님과 함께 잘 협의하고 재미있고 화기애애한 위원회가 되었으면 한다. 오늘도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린다.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제시해주시면 간부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다. 먼저 사장님 말씀 부탁드린다.

○ 김낙곤 사장 : -전 위원장이 공직에 취임한 관계로 호선으로 새 위원장님을 모시게 됐다. 축하드리고, 맡아주셔서 감사드린다. 광주MBC는 그사이에 방송본부장을 새롭게 임명했다. 지상파본부와 디지털본부가 큰 줄기인데, 뉴스팀과 지상파의 TV, 라디오 제작 콘텐츠를 포함한 방송본부장을 사장이 지명을 하고 구성원의 동의를 받는 절차가 있다. 한신구 본부장은 뉴스 기자로 활동해 왔고, 취재부장, 보도국장, 경영국장을 했고, 방송본부장을 맡게 됐다. 지상파가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그 역할을 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격려해주시고 응원해주시면 좋겠다. 방송본부장은 인사 말씀 바란다.

○ 한신구 방송본부장 : -임무를 맡게 돼 버겁기도 하지만 열심히 하겠다. 통합 이후에 의대 설립 갈등 등 복잡 첨예한 문제가 걸려 있는데 언론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다. 감사드린다.

○ 김낙곤 사장 : -추석이 10여 일밖에 남지 않았다. 다음 달 10월 8일은 창사 62주년이 된다. 창사를 맞아 풍성한 기획을 준비하겠다. 10월 8일에 공개홀에서 기념식도 한다. 창사 특집을 준비하고 있고, 대한민국 김치대전, 영산강 그란폰도, 무등산권지오마라톤대회 등 다양한 행사에 매진하는 가을이 될 것이다. 위원님들도 관심 두고 조언과 관심 바란다.

○ 박봉순 위원장 : -업무 보고를 해달라.

○ 한신구 방송본부장 : -보도 부문부터 말씀드리겠다. 지역 이슈뿐 아니라 주요 수도권이나 정치 뉴스의 로컬화로 현장성을 제고하고자 했다. 특히 정부의 공공기관 2차 지역 이전 계획, 민주당 새 지도부 출범에 따른 지역 현안 탄력 등을 다수 보도했다. 반도체 산단 공식 확정 이후 지역 산업구조 재개편, 맞춤형 인재 육성을 위한 대학 교육체계 정립, 부동산 파장 등 다각적 경제 측면을 분석 보도했다. 통합특별시 및 시교육청 출범도 집중적으로 보도했다. 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대민행정 서비스 변화, 조직개편 과정의 갈등 양상, 향후 과제 등을 밀착 취재했고, 구호성 통합 보도에 그치지 않고, 복지와 경제, 민생 등 실질적인 혜택으로 이어지는지 지속적으로 추적 보도했다. 특히 '광주·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따른 지역 산업구조 재개편, 대학 교육체계 정립, 부동산 파장 등 경제적 측면을 심층 보도했다. 한빛원전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주민 우려와 기대, 스쿨존 보행자 중상 사고, 장애인복지관 중증장애인 추락사 등 휘발성이 강한 주요 사건·사고 기사를 일회성 보도에 그치지 않고,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과 대안 제시로 이어지는 보도를 여러 차례 했다. 주요 계획으로는 아침 뉴스 개편을 준비하고 있으며, 창사 62주년 및 광주특별시 출범 100일 기념 여론조사를 기획하고 있다. 광주MBC 등 지역 언론 3사 합동 정례 조사인데, 출범 100일 맞은 민형배 시장과 김대중 교육감 직무평가, 2호선 2단계 안갯속 등 지역 현안 지역민 인식 조사 등을 구상 중이다. 이 밖에도 광주비엔날레와 여수세계섬박람회 연계 필요성, 반도체 산단 실무 속도, 광주공항 임시 국제선 취항 명암, 장윤기 살인사건, 스쿨존 보행자 중상 사고, 장애인복지관에서 중증장애인 추락사 등 지역 주요 현안을 계속 보도하고자 한다. 또한 다시 불거진 통합시 약칭 논란, 출범 석 달째 '아직도 조직개편 중' 등 광주특별시 출범 후 관련 아이템을 계속 보도하겠다.

-콘텐츠팀의 주요 업무 보고를 하겠다. 주조정실 재난방송 시스템을 점검하고, 창사 특집 대토론 <메가프로젝트> 3부작 기획, 섭외 등 업무를 진행 중이다. 9월30일, 10월1일 녹화하고, 방송은 10월8일, 15일, 22일이다. 라디오 창사 특집 공개방송 <정오의 희망곡> '굿모닝 양림'은 10월16일 현장 녹음이 진행된다. <더 프레지던트>는 토요일 오전 9시 30분 편성한다. 정규프로그램으로 9월3일 <시사용광로> 통합특별시 출범 두 달, 전남광주특별시는 지금,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용수 확보 해법은?, 2026 아시안게임, 우리 지역 선수들의 활약은? 등을 주제로 방송했다. <빛나는 나의 도시>에서는 빛나는 당신 초대석 김병내 남구청장, 전설의 갸들 김민규, 김성한 해설위원, 민형배 광주특별시 시장 등이 출연했고, 나주배 첫 출하 현장, 영광 모싯잎 송편 및 광주 야행 현장을 촬영하기도 했다. 아시안게임이 이번 주에 개막하고 2주 동안 진행된다. 편성이나 뉴스가 잦은 변경이 있을 텐데 유동적인 상황 대비해 방송사고 없도록 충실히 대처하겠다.

○ 서준배 디지털본부장 : -디지털본부 실적부터 말씀드리겠다. 광주특별시민을 위한 반도체 특별과외를 매주 토요일 올리고 있다. 유튜브용 콘텐츠를 지난 9월1일 촬영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디지털전환지원사업을 수행 중이다. 테이프 2,016개를 디지털로 전환했고, 총 28,000개를 예정하고 있다. 불방 기사에 AI로 음성을 더빙해 AI 뉴스를 제작하는 작업을 하여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에 동시 업로드 하는 시스템을 개발했다. 유튜브 콘텐츠로 <광주 then and now>를 제작하고 있다. 광주의 과거와 현재를 교차편집하며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데, 조선대학교, 상무지구, 양림동, 염주, 아시아자동차 등을 선보일 예정이다. <전설의 타이거즈>는 방수원, 장호연 편을 촬영했고, <암 극복 프로젝트> 유방암, 대장암, 전립선암, 간암 편 등을 제작하고 있다. 장성군 필암서원 다큐 제작을 계속하고 있으며 11월에 공개할 예정이다. 전남광주대학협의회와 '반도체/AI 지역인재 양성' 공동캠페인을 방송할 예정이다. 주요 계획으로는 <더 프레지던트> 100분물 13편을 11월까지 제작해 방송할 예정이다. 특별시민의 '특별한 인터뷰'도 제작준비 중인데, 시민들의 이야기를 통해 공감과 감동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 유튜브 콘텐츠는 <광주 then and now>에서는 백운광장 편 등을 제작하고, 다큐 필암서원 제작을 계속한다. 한국언론진흥재단 공익광고사업에 선정돼 캠페인 두 편을 제작하고, 무등산권지오마라톤이 10월10일에, 영산강 그란폰도는 10월31일에 열리는데 이 업무를 추진하겠다.

○ 박봉순 위원장 :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다.

○ 박찬호 위원 : -아침 <뉴스투데이>에서 주요 뉴스가 나오는데 두세 개씩 나온다. 다른 지역 뉴스는 주요 뉴스에서 뺐으면 한다. 다른 지역 뉴스가 주요 뉴스로 들어가면 광주·전남 시청자에게는 적절하지 않은 면이 있다. 며칠 전에 했던 게 나오기도 하는 것은 지양했으면 한다. 최근에 청년들의 직업이나 창업에 관해 학교나 지역사회에서 관심이 높다. 그러나 언론에서 모두의 창업은 다루지 않는다. 과학 관련 이야기도 뉴스에서 소외된 느낌이다. 콘텐츠가 많아 우선순위에서 밀린 느낌이다. 소외된 분야에 관심이 필요하다. 청년, 창업, 앵커 사업 등 지역에 정주시키는 사업을 크게 하고 있는데 뉴스에서 관심 가져주길 바란다.

○ 반수경 위원 : -시청자위원이기 때문에 의무감을 가지고 시청한다. 많이 느끼는 것 중 하나가 시청자는 생각지 못한 곳에서 여파가 쎄다는 점이다. 8월20일 <시사용광로>에서는 '버스하우스, 청년은 왜 분노하나?'를 주제로 청소년에 대해 토론이 있었다. 일단 주제 대상이 청년이라는 신선함과 청년에 관한 내용이 드물게 방송되는데 청년정책 등 청년을 주제를 기획한 점이 좋았다. 하지만, 주제와 달리 버스하우스로 인해 청년이 분노한 이유를 이해하는데 부족함이 많았다. 버스하우스가 무엇인지 일반 시청자들은 이해하기 어려웠으며 버스하우스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다. 어떤 점이 논란이 되었고, 왜 감정이 표출되었는지, 도면을 비롯해 외관이라도 보여주고 눈으로 보면서 분노한 이유를 공감할 수 있었다면 하는 아쉬움이 많았다. 버스하우스를 제안하게 된 배경도 출연진들끼리는 이해하고 있는 듯했으나 시청자들의 이해를 끌어내는 데는 한계를 느꼈다. 이후 진행되는 내용은 주로 청년정책, 청년 문제 특히 주거 및 일자리, 부채, 문화 여가 등에 관한 내용으로 진행되어 제목하고는 조금 방향이 다른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내용으로 미루어보면 제목이 '청년정책, 청년 문제를 짚어본다' 등으로 해서 그중 하나의 주거 문제에 버스하우스를 다루었다면 맥락이 맞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울러, 청년들의 생활비 부채 문제를 이야기했을 때 시청자 입장에서 우려된 점은 시청하는 청년들이 부채에 대해 당위성을 가지는 부정적인 면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었다. 예를 들면 부채가 있는 청년들은 "부채를 가질 수밖에 없는 사회적 현실이야, 내 탓이 아니야…."라고 말이다. 부채가 없는 청년 중에도 부채가 생겨도 사회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정당화할 수도 있는 내용이어서 방향이 다소 아쉬웠다. 또한, 방송할 때는 주제를 선정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면 좋겠다. 토론할 때 보면 배경 설명이 없다. 시청자는 주제를 이야기했을 때 배경을 이해할 수 있을까. 시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주제가 설정이 되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 설제학 위원 : -9월3일 방송된 <시사용광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두 달이 지난 현재 상황에 대한 설명과 여러 문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주제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다. 군 공항 이전 문제와 전남 국립의대 선정 문제가 해결되었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다고 들었다. 이 두 가지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었다고 생각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고, 아직 진행 중인 문제라고 생각한다. 지역의 여러 문제가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도의 개선이 이루어질 만큼 충분한 시간은 아니라

고 생각하지만,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에는 좀 더 속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프로그램을 보면서 현시점의 상황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지역의 여러 현안을 언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 현안 중 한 가지 문제를 조금 더 깊이 있게 다루고,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도 함께 들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 심재현 위원 : -시사 프로그램은 잘 안 보는데 시청자위원이기에 시청을 하기도 한다. 방송에 초대한 패널에 관한 의견이다. 섭외와 관련해 예전부터 들었던 생각이다. 정치인이나 시민단체 분들이 출연해서 의견을 내는 게 많은데, 경제를 모르는 사람이 경제를 말한다. 정치하는 분이 청년정책 말하는 것 보면 저들도 모르면서 말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한다. 경제에 거시적인 흐름이 있다. 흐름 속에서 양극화는 계속 벌어질 수밖에 없고, 소외된 계층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그런 얘기를 해야 하는데, 이런 여건하에서 청년을 위해 국가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냉정하게 얘기해줘야 한다. <시사용광로> '청년정책은 청년을 구했나?' 편을 보면 청년정책의 외연은 너무 광범위하여서 주제 자체가 모호했다. 청년정책 중 주거, 일자리 등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 토론을 하는 것이 좋지 않았나 싶다. 결국은 핵심은 일자리로 흘러갔고, 일자리 부족 원인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광주 전남지역에는 산업이 공동화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정치인들이 관심을 두고 논의하여야 하나, 정치인들이 아니라 실제 산업 현장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현장에서 겪는 각종 어려움, 한계 등 현실적인 문제를 말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주거 문제는 자본주의 구조에서 통화량이 증가하고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다. 청년들에게 이러한 점은 이해를 구할 필요도 있다. 그런데도 국가는 청년들에게 최저 수준의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거를 공급해줄 의무가 있다. 그런데 과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 분야에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입하는지는 의문이다. 말로만 하는 청년정책은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고 강한 비판이 필요한 것 같다.

○ 양지현 위원 : -9월10일 <광주MBC 뉴스데스크>에서는 지역 농촌 현장의 심각한 인력난 속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농촌 인력난이 많이 해소해 주고 있다는 걸 보도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의 임금 갈취와 여권 압수 등 인권 문제 고발 보도가 인상적이었다. 브로커의 지자체 침투 방식과 제도적 허점을 설득력 있게 잘 고발해주었다. 향후 사법 당국의 수사 진행 상황은 물론 지자체의 재발 방지 대책 등 대안 마련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후속 보도도 이어지길 기대한다. 여수세계섬박람회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문제점 등을 냉정하게 짚어주어서 더 관심을 두게 되는 기회였다. 비판에 머무르지 않고 남은 행사 기간 축제에 대한 관심도를 높일 수 있도록 관심을 바라며, 축제에 대한 인기가 반등하길 바란다.

○ 유동국 위원 : -9월10일 <광주MBC 뉴스투데이>에서는 지역의 핵심 현안인 광주지역 기후 양극화, 기후 롤러코스터와 도시 인프라 개선, 상습 침수 신안동 152억 투입, 여수·광양항 항로 확장을 심도 있게 다루며 지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켰다. 특히 광주·전남 권역에 국한되지 않고 포항MBC, MBC강원영동 등 타 지역사와의 네트워크를 통해 '영월 광산 재개장', '영덕군 보행환경 문제' 등 다채로운 소식을 다룬 점은 시청자의 시야를 넓히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다만, 다채로운 기획 구성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보도 호흡이 다소 느리게 느껴졌다. 이날 주요 리포트들, 고흥 고향사랑기부제 2분 45초, 영월 광산 재개장 2분 50초, 영덕 보행환경 2분 30초 등은 한 리포트당 소요 시간이 다소 길게 편성된 듯하였다. 또 김두식 앵커의 진행과 현장 리포팅 과정에서 전반적인 속도가 다소 느리고 음성이 다소 저조하게 전달되었다. 늘 치열한 현장 취재와 폭넓은 시야로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담아내기 위해 애쓰시는 제작진과 진행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뉴스 이야기에 덧붙이고자 한다. 중앙 뉴스 진행 후 지역 뉴스만 30분 정도 한다. 30분을 어떻게 채울까 걱정이다. 15개~20개 뉴스 가운데 긴 분량의 꼭지가 5개 정도 나오기도 한다. 시청자가 볼 때 중앙에서 보던 뉴스와 지역 앵커로 바뀌면 뉴스가 길다는 느낌이 든다. 앵커 톤도 낮다. 리포팅하는 기자도 활기차고 높고 하면 좋겠는데 대체로 낮다. 활기찬 아침을 맞기에는 낮은 게 아닌가 느낌이 든다.

○ 이미진 부위원장 : -청년들이 부채가 진짜 많은 거 같다. 비트코인에 몰입하는 청년이 많다. 게임 등 불필요한 일로 부채가 생기기도 한다. 방송이 안 좋은 일을 가르치기도 한다. 범죄자 중에 방송을 보고 했다는 이도 있는데, 이런 부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반도체 산업의 경우 많은 물을 필요로 한다. 지역민도 희생

이 필요하다. 화순 댐이 가뭄에 시달려 힘든 걸 봤다. 앞으로 방송에서도 이런 문제 다뤄서 희생이 없도록 잘 풀어갈 필요가 있다. 전에 방송에서도 잘했는데, 우리의 문제이기도 하다. 방송에서라도 충분히 어필해줬으면 한다.

○ 이숙영 위원 : -대만관 관련하여 광주비엔날레 전시 이슈가 있었다. 반도체가 들어오면 청년 인재를 발굴하고, 양성하는 데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관심이 많은데, 광주비엔날레도 마찬가지다. 정작 청년 예술가들이 참여할 기회가 적다. 문화예술에 종사하고 있는 젊은 예술가를 발굴하고 소개함으로써 청년 예술가가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이해경 위원 : -아침 뉴스를 보다 보면 안동 등 다른 지역뉴스가 방송된다. 지역민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뉴스를 바란다. 행정 통합 이후 반도체 뉴스뿐이다. 도시와 농촌이 교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서로 체험한다거나 1박2일, 지역을 소개하거나 지역 농산물 소비한다거나 하는 등 교류가 되는 프로그램을 만들면 좋겠다.

○ 조명근 위원 : -최근 9월3일과 10일에 방송된 〈시사용광로〉를 시청하면서, 지역의 중요한 현안을 시의성 있게 선정하고, 이를 시민들이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토론의 장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특히 두 방송 모두 광주·전남의 현재와 미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핵심 현안을 선정했다는 점에서 지역 공영방송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고 생각한다. 9월3일 방송에서 다룬 자치구의 일반 시 전환과 재정·자치 문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과 함께 지역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단순히 행정구역이나 조직의 변화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재정 확충과 행정 효율성이라는 측면과 함께 광주의 정체성과 주민자치가 약화할 가능성까지 함께 제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특히 행정 통합이라는 큰 변화의 과정에서 지역사회에서 제기되는 서로 다른 시각을 한자리에서 논의함으로써 시청자들이 사안을 한쪽으로만 바라보지 않고 여러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고 평가한다. 9월10일 방송에서 다룬 반도체 산업의 용수 문제 역시 시의성이 매우 높은 주제였다. 반도체 산업 유치나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에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에서, 실제 산업을 가능하게 하는 용수라는 기반 시설의 문제를 핵심 의제로 끌어냈다는 점은 지역 언론으로서 의미 있는 접근이었다고 생각한다. 산업단지 조성이나 투자 규모만을 강조하지 않고, 산업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현실적인 문제를 짚었다는 점에서 시청자들에게 중요한 문제의식을 던졌다고 본다. 방송에서 정치권, 학계, 언론 및 시민사회 등 서로 다른 위치에 있는 패널들이 참여함으로써 하나의 현안을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한 점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특히 지역의 주요 현안은 정치적·경제적·사회적·환경적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으므로 특정 분야의 시각만으로는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다. 따라서 〈시사용광로〉가 앞으로도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진 패널들이 공개적으로 논쟁하고 시청자가 그 논리를 비교할 수 있는 토론의 장 역할을 계속해 주기를 바란다. 좋은 의제를 선정해 토론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앞으로는 '토론 이후의 과정'을 추적하는 프로그램으로 발전했으면 한다. 한 번의 토론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데 그치지 않고, 몇 개월 뒤 그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고 있는지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지역 공영방송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시사용광로〉가 단순한 시사 토론 프로그램을 넘어 광주·전남 지역의 중요한 현안을 논의하고 검증하는 대표적인 지역 공론장으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

-실질적으로 문제 제기에 대한 부분은 시기적절하게 잘 되고 있다. 전남광주에서 중점 추진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 문제 제기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이런 문제들이 어떻게 해결되었는지 하는 부분도 짚어가면서 매듭이 지어지는 형태로 진행이 되었으면 한다.

○ 박봉순 위원장 : -전남광주 통합시가 발족하여 2달이 지나도록 의대 설립, 군공항 이전, 반도체 산업 유치 등 굵직한 사업과 현안들이 많은데 관련 지역과 주민들이 각자의 의견만 고집하니 출발부터 내부적으로나 외부에서도 성공의 확신에 대하여 조금 우려를 하는 것 같다. 40년 만의 통합이 지역 기득권에 대하여 쉽게 접근하기가 어렵겠지만 지역발전의 큰 틀에서 성과를 내야 하므로 지역 미디어에서 긍정의 시그널을 많이 다루어 주었으면 좋겠다. 방안으로 반대 의견만 보여줄 것이 아니라 긍정의 목소리도 뉴스, <시사용광로> 등 전파력이 큰 프로그램에서 다루었으면 한다.

-기타 의견으로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프로그램 개선 계도 관련 내용이 올라와 있다. <생방송 빛나는 나의 도시> 생활정보 프로그램에서 특정 업체를 과도하게 부각시켜 방송했다는 지적이다. 광고효

과를 주는 부분이다. 방송 시 유의할 필요가 있겠다.

-오늘 제시된 위원님의 의견 등에 대해 답변이 필요한 부분은 해달라.

○ 한신구 방송본부장 :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해주신 의견에 대해 몇 가지 답변을 드리겠다. 청년 문제는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인다. 청년정책이나 저출산 정책이 많이 쏟아지고 있다. 포괄적인 것보다는 심층적이고 현실적인 부분이 될 수 있게 하겠다. 박찬호 위원님 말씀하신 주요 뉴스는 추석 이후 없애는 방향으로 하겠다. 기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과정이고, 스스로 할 수 있게끔 자발성을 주려고 한다. 말씀해주신 부분 추석 이후는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지역 대학이 하는 앵커 사업 추려서 소개하고 청년에게 활기를 주고,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부분 이어갈까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드린다. <시사용광로>의 주제에 관해서는 좀 더 친절하게 설명하는 방법을 고민하겠다. 1분이라도 앞에 인트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나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제작의 기법을 다양화하도록 하겠다. 심재현 위원님 <시사용광로>로 의견을 주셨다. 저희가 주제를 가장 먼저 고민하고 그다음 패널을 선정해 일정 등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고사를 많이 하기도 한다. 현실적으로 한계에 부딪히는 부분이 있다. 그때마다 내용 등을 보완하도록 하겠다. 이미진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물 문제도 관심을 가지겠다. 반도체 관련 용수가 65만 톤이 필요하다고 한다. 동복댐을 수위를 높일 때 150~200가구가 다시 이주해야 할 상황이다. 추석 때 성묘를 갈 텐데 그분들의 애환 등을 소개하겠다. 피해 주민이 적절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유동국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현실적인 제약 조건이 있다. 서울은 오늘 뉴스이다 보니 몰입감이 있다, 지역은 기획뉴스로 나가다 보면 제안, 정책, 고발 형태가 되기도 한다. 기계적 힘을 빌려 톤을 높인다거나 시청자가 이해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을 찾아보겠다. 이숙영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경쟁사에 비해 문화 부문에 뉴스 비중을 많이 두고 있다. 지역 예술인, 청년, 공간에 뉴스의 문을 열어드리려고 한다. <빛나는 나의 도시>나 라디오 등 통해 공간을 넓혀보도록 하겠다. 아침 뉴스 시간이 길다. 취재기자는 부족하다. 그런데도 아침 뉴스 시간을 통해 이슈와 인물 등을 다루고, 집중 아이템을 통해 여러 해결책 찾는다거나, 다른 지역이 아닌 우리 지역의 뉴스를 내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린다. <시사용광로>에서 제기된 부분은 다음 날 뉴스에 방송하면서 이슈화하고 후속 내용이 나오면 보도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도록 하겠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프로그램 계도는 제작 시 더욱 유의하도록 하겠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더욱 신경을 쓰고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 김낙곤 사장 : -오늘 날카로운 지적 많이 해주셔서 저도 아프다. 잘 지적해준 부분에 대해 회사 대표로서 아프면서도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위원님들이 해주셨다. 시청자를 대변해주신 내용에 대해 제작진에게 잘 전달하도록 하겠다. 광주MBC 플랫폼을 사용하는 이용자의 의견이 잘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 반도체, 청년 등 다양한 현안이 다 담겨야 하는데 다 할 수 없는 점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드린다.

○ 박봉순 위원장 : -지난달 회의에 제시된 처리 결과는 서면으로 제출돼 있다. 이에 관해 별도 의견이 없으면 9월 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다. 환경이 열악하지만, 사장님께서 잘해줄 것으로 본다. 감사드리며 오늘 위원회를 마치겠다.

끝.